



“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루카 15,20-21)

〈돌아온 탕자〉, 피터 브란들, 1715년, 국립미술관, 프라하, 체코

[제1독서] ..... 여호 5,9ㄱ-10-12

[화답송] ..... 시편 34(33),2-3.4-5.6-7  
(◎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2독서] ..... 2코린 5,17-21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음] ..... 루카 15,1-3.11-3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 봉헌성가: [212] 너그려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343] 하느님의 어린양
- 파견성가: [120] 수난의 예수

##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에<sup>1</sup>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sup>2</sup>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sup>3</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sup>11</sup>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sup>12</sup>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sup>13</sup>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sup>14</sup>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sup>15</sup>그래서 그 고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sup>16</sup>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sup>17</sup>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sup>18</sup>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sup>19</sup>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sup>20</sup>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sup>21</sup>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sup>22</sup>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sup>23</sup>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들여 잡아라. 먹고 즐기라. <sup>24</sup>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sup>25</sup>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sup>26</sup>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sup>27</sup>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몹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sup>28</sup>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sup>29</sup>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sup>30</sup>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sup>31</sup>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sup>32</sup>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 †묵상

오늘 복음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 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대던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들려준 비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유 속 첫째 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상징하고, 아버지 가산을 탕진하고 후회하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어 그들과 음식을 드시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비유 속 큰아들의 대사는 그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복음서는 큰아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열린 결론입니다. 바로, 독자인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염철호 요한신부)

##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 -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의 눈은 빛나고 있다.-



〈돌아온 탕자〉, 피터 브란들

거의 반라인 아들과 연로한 아버지가 서로 만나고 있다. 아버지는 양손으로 헐벗은 아들의 몸을 감싸주며 안아주고 있다. 지친 표정의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 배경에는 집의 대문과 푸른 하늘,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 표현돼 있다.

이 작품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카 15,11-32)를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려주셨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다며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루카 15,21-24)

작가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 즉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만을 부각시켜 표현했다.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가슴을 만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의지할 것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기동보다도 든든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푸른 하늘과 무성한 나무, 따사로운 햇살은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새날이 시작됐음을 알려준다.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의 눈은 빛나고 있다.

작은 미술관의 한쪽 벽에 걸려있는 이 작품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머물며 많은 생각을 했다. 먼저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가정은 삶의 전부였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희생하셨다. 작품 안의 아들이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달려와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나 역시 이제야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 앞에서 나는 사제로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본당에서 사목하다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게에 지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이 작품 속의 아들처럼 힘겨운 모습을 한 채 찾아온다. 그들을 만날 때 나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다독거리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열어주고 있는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된다. <정웅모 신부의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가톨릭신문>

## 회심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모두는 회심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인내와 자비가 우리를 동반해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회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깊은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이 자비에 진심을 다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하도록 우리의 책임감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회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방식에서 무엇인가를 고쳐 나가면서, 이 부르심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하느님의 인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이십니다. 약한 불꽃도 꺼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사람이 공동체에 자신의 사랑을 내놓으며 기여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함께하십니다. 이 사순 시기를 영적 쇄신의 시기요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에 신뢰를 두며 마음을 여는 시기로 삼고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www.vaticannews.va >

여러분은 이번 사순시기에 어떤 단식을 원하시나요?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교황 프란치스코



FOURTH SUNDAY OF **LENT** March 31, 2019

*The Son who was Sorry*



**T**oday's Gospel reading tells us about God's forgiveness. We are like the son who ran away and wasted all his money whenever we don't use our gifts or talents to serve God or others.

God is like the father in this story. He lets the younger son do whatever he wants, but he loves him even when he chooses to be bad. All he wants is for his son to come home and be sorry. He is ready and waiting to forgive the prodigal son.

God is waiting to forgive us too, in the Sacrament of Confession. He wants us to be sorry for our sins and tell Him we are sorry so He can take them away. Try to make sure you go to confession before Easter so your soul will be clean and ready for the great celebration!

<<https://www.thekidsbulletin.com>>

<오마리아 그림-바오로말 콘텐츠>

**The Way of the Cross (The Stations of the Cross)**

Praying the Stations of the Cross—alone or with a group—is a Lenten tradition. The 14 Stations of the Cross represent events from Jesus' passion and death. At each station we use our senses and our imagination to reflect prayerfully upon Jesus'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CCD-CYO News

**The Way of the Cross prayer at the gym**

On Sunday, March 24<sup>th</sup>, St. Paul Chung Sunday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gathered at the gym and prayed the Way of the Cross altogether.



**The Traditional Stations of the Cross** Here are the Stations of the Cross as they have traditionally been presented from the 17<sup>th</sup> through the 20<sup>th</sup> century.

<그림 : 오마리아 - 바오로말 콘텐츠>  
<14 stations of the Cross : <https://www.catholic.org>>



**I** Jesus is condemned to death



**II** Jesus carries his cross



**III** Jesus falls for the first time



**IV** Jesus meets his Mother



**V** Simon of Cyrene helps Jesus to carry his cross



**VI** Veronica wipes the face of Jesus



**VII** Jesus falls for the second time



**VIII** Jesus meets the women of Jerusalem



**IX** Jesus falls for the third time



**X** Jesus' clothes are taken away



**XI** Jesus is nailed to the Cross



**XII** Jesus dies on the cross



**XIII** The body of Jesus is taken down from the cross



**XIV** Jesus is laid in the tomb

**HOW DO WE PRAY**

There is not one particular way of praying the Stations of the Cross. The following is just an example of one of the ways one may pray the Stations of the Cross.

• **Opening Prayer**

• **14 Stations of the Cross**

- *Kneel* (genuflect)
- Story, Prayer, Reflection
- In between each Station, in addition to saying the Our Father, Hail Mary, and Glory Be.
- Continue to the next station

• **Closing Prayer**

ANNOUNCEMENT

**1 Jr. High Family Retreat**

- **When:** Saturday, April 27, 2pm-6pm
- **Who:** 6th- 8th grade students and parents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lass students)
- **Registration :** Sign up at CCD Office

**2 SERVE 2019 Camp**

- Formerly known as **Jr. High WorkCamp**
- **When:** July 8 - July 10, 2019 (8:30am to 8pm)
  - **Where:**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Fairfax, VA
  - **Who:** Open to all rising 7<sup>th</sup> to 9<sup>th</sup> graders (Limited Spaces Available)
  - **Registration Fee:** \$50 / participant

We are in need of **Adult Crew Leaders** and **High School Helpers.**

Please contact : Mrs. *Yunchong Boyle* (Clare), CCD Assistant Principal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if you are interested in serving in this role.

**LENTEN Word Search** (Mar. 24, 2019)

Answer



GIVE ALMS TO THE POOR



Each year, St. Paul Chung Sunday School participates in CRC Rice Bowl in order for our young children to engage in almsgiving. Please return your child's Rice Bowl to his/her homeroom teachers by April 28 & May 5.

## ○ 2019년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2019년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가 지난 3월 24일(일)에 있었다. 예수 탄생 예고 축일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레지오 갱신식, '아치에스'는 라틴어로 '전투 대형을 갖춘 군대'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고 한 해 동안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이는 의식이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지도신부님께서서는 봉헌 사열식 직후 “군대는 사열식을 통해 군기를 점검하고, 레지오 마리아는 아치에스 봉헌 사열식을 통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본당 내 30년의 역사를 지닌 레지오 마리아 단원 각자가 개인 성화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레지오의 정신인 성모님의 정신을 본받아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아치에스의 꽃인 봉헌 예절에서는 신부님, 수녀님의 개인 봉헌을 시작으로 총 250여 명의 행동 단원, 협조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였다. 또한 김운옥 마리아, 조보순 아가다, 강금생 안나, 김영자 마리아 등 네 명의 30년 근속자를 비롯하여 총 51 명의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있었다.

성체 강복 시간을 끝으로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께 바친 충성의 허원을 갱신하고 다음 1년 동안 죄악의 권세와 싸울 힘과 축복을 가슴에 품은 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기사 제공 : 하늘의 모후 꼬미시움 단장 정선화 루시아 / 사진: 전용진 라우렌시오)



## ○ 울뜨레아 회합

지난 3월 22일(금) 본당 울뜨레아 모임이 친교실에서 열렸다. 마태오복음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힘든 상황에서도 소명을 잃지 말고 곳곳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아픈 분들을 위해 양팔기도를 바쳤다.



### 재활용 표어 콘테스트

We are inviting all parishioner to participate in Recycle Program Slogan Contest.

- 신청 : 4월 14일까지 사무실 (Submit by April 14, 2019)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The Light is  
ON for You.

Celebrate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 사순 고해성사

사순 시기 동안 알랑톤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30 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부활 합동 판공성사**

- 일시: 4월 9일(화) 오후 3-5시, 오후 7-9시
- 타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합동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이 시간을 많이 이용하여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오후 7:30 평일미사는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2 전신자 사순 특강 II**

- 일시: 4월 14일(일) 오후 1시 - 3시
- 주제: "십자가와 부활 신앙"
- 강사: 허규 베네딕도 신부(가톨릭대학 성서학 교수)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3 2019 WorkCamp 기금 마련 비빔밥 판매**

- 일시: 3월 31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친교실)
- 가격: \$10 (단체 주문 환영, 포장 가능)

**4 병자 영성체**

- 일시: 4월 5일(금) • 신청: 조영민 형제 (703)264-0050

**5 성체강복**

- 매월 첫 금요일(4월 5일) 미사 후에 '성체 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회장단 회의**

- 일시: 4월 5일(금) 오후 8:20(회의실)

**7 구역 임원교육**

- 일시: 4월 7일(일) 오전 11:30(B-1,2)

**8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4월 7일(일) 오후 1시(B-1)

**9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4월 7일(일) 오후 1시(B-3)

**10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3월 31일(일) - 4월 28일(일) 사무실, 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 준비 서류: 견진 신청서, 영세증명서, 혼인증서
- 견진식: 6월 9일(일) 오후 2:30, 주교좌 성당

**11 CYO(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4월 5일(금) 오후 6시 - 4월 6일(토) 오전 9시, 성당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2 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

- 성당 현관 입구 제대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76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교육**

- 부부가 더 깊은 사람으로 생명을 있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주말 교육입니다.
- 일시: 5월 25일(토) 오후 7시 - 5월 27일(월) 오후 5시
- 장소: Double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07024)
- 문의: 김창호 요한 비안네 (tjohnkim@gmail.com)

**14 2019년 파티마 가정 순례 성모님 접수(선착순)**

- 파티마 성모님을 가정에 모시고 기도와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이종석 루카 (703)254-7963

**15 제3회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

- 일시: 4월 28일(일) 오후 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참가비: \$100.00(점심, 저녁 제공)
-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하성수 (703)201-4727

**16 K of C Raffle 티켓 판매 (WorkCamp 기금 마련)**

- 티켓 판매: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Raffle 티켓 \$5/1장)
- 판매 기간: 4월 14일까지
- 상품: 자동차 5대, 현금(\$20,000)
- 문의: 하성수 다니엘 (703)201-4727

**17 묘지 구입(20% 할인) 및 정리**

- 일시: 4월 6일(토) 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홍익훈 요셉 연명회 회장 (703)966-8206

**18 하상 도서관 신간 서적 안내**

- 김수환 추기경 행복한 고난(구중서 지음)
-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최태환 신부 지음)
-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와타나베 준이치 지음)
- 8시, 10시 미사 후 도서관리자 확인 후 대출/반납 가능 빌려 가신 책은 신속하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본당 춘계 대청소 (단체부 주관)**

- 일시: 4월 7일(일) 10시 미사 후 실시

단체명	담당 장소
K of C	친교실과 방, 전체 바닥, 테이블 정리
M.E.	나눔터
꾸르실료	주임/보좌 신부님 방 & 복도
레지오 마리아	주차장 전체
루카회	사제관 마당
바로로회	하상관 1층, 지하실
베드로회	본당 내 전체(십자가 먼지 제거 필수)
성령 기도회	친교실 B, 창문
성소 후원회	하상관 체육관, 정리정돈 및 의자 청소
요한회	본당 입구, 하상관 입구
파티마	친교실 A, 창문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3월 31일(일)	사순 제4주일	십자가의 길(오전 9:1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성당), 바로로 미팅(오후 4시, B-1,2), WorkCamp 기금 마련 비빔밥 판매
4월 1일(월)	사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2일(화)	사순 제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바로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3일(수)	사순 제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바로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4일(목)	사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5일(금)	사순 제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20, 하상관), 병자 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성체강복-미사 후), 회장단 회의, 고등부 사순피정(오후 6시, 성당)
6일(토)	사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40, 친교실),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 파티마 첫토요 심신(오후 6:15)
4월 7일(일)	사순 제5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B-3), 본당 춘계 대청소

**성삼일·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 ◆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4월 18일(목) 오후 8시(미사 중 세족례)
- ◆ 성금요일 (4월 19일)  
• 십자가의 길 - 오후 3시/오후 7:15  
• 주님 수난 예식 - 오후 8시
- ◆ 성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4월 20일(토) 오후 8:30
-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4월 21일)  
• 성인미사 - 오전 8시, 10시(성당)  
• 학생미사 - 오전 10시(친교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Northrop Grumman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

**2차 헌금**

이번 주일에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2019년 사순 시기 동안 우리 분당에 할당된 주교님 사목 보조비 금액은 \$156,000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

사순 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시고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순 제4주일: 파티마 사도직
- 사순 제5주일: 성령 기도회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순 제 4주간: **욥 16-19, 로마 16**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3월 24일(사순 제3주일)

주일헌금 ..... \$7,951.74  
 교무금 ..... \$8,3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120.20  
 특별헌금 ..... \$700.00  
 2차헌금 ..... \$0.00  
**합계 ..... \$21,141.74**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KACM TV 하이라이트**

4월 4일(목) 오후 5:00-6:00  
 4월 5일(금) 저녁 8:00-9:00  
 4월 7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c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별기획 한국수도원 음식: 가톨릭 교회의 수도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정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메디케어·다보장보험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레드핀 소독</b>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키엘) 703-881-1155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HOP 건너편) 703-543-6008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예비 펫 그루밍</b>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피아노 레슨</b> 유아부터 성인레슨까지 가능하니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703-505-8559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